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전략그룹 그룹장
이준희
jhlee3@jipyong.com

ESG 열풍으로 기업들은 재무적·비재무적 가치의 통합과 경영 전략 및 관리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및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권 중심의 비즈니스 가치 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협력사 포함 공급망 관리 및 ESG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되고 있다. 이제 ESG와 관련한 기업경영 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ESG에 대한 리스크 없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성장과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ESG의 유용한 활용”도 고민해야 하며, 이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의 ESG 영역과 이슈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패러다임과 잘 맞닿아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와 금융에서 기업경영의 ESG 평가 영역과 SDGs 목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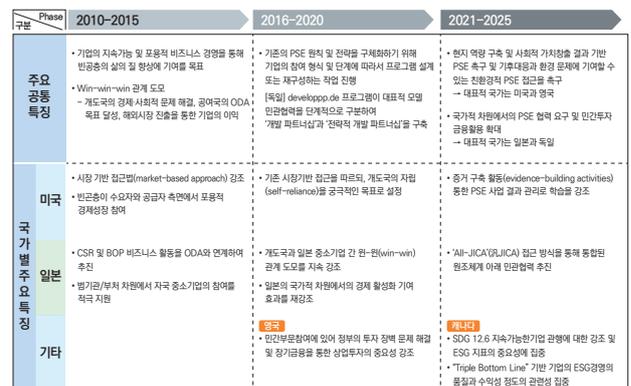
[그림 1] ESG경영 주요 영역과 SDGs 목표 연결



자료: 지평ESG센터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자료 재인용

ESG 패러다임 안에서 SDGs와 개발협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ESG 경영을 생각해보면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민관협력(PPP)을 넘어서서 윈윈(win-win)형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 [그림 2]는 최근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수립한 개발협력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Private Sector Engagement, PSE)에 대한 것으로 민간기업들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요 공여국 PSE 정책 동향



자료: 지평ESG센터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자료 재인용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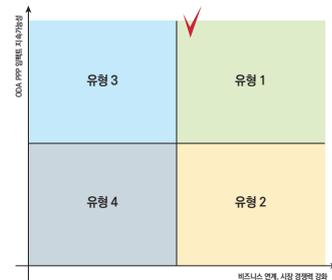
2020년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PSE 방향성과 투자 금융 분야에서 민간투자자와 ODA 연계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 금융 활용의 확대와 함께 명확한 성과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론,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 및 개발도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한국의 ODA의 민간부문 참여(PSE)를 위해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의 3대 목표를 기반으로 9개의 추진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ESG 패러다임과 함께 ODA에 민간부문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ESG 연계 개발협력에 있어 공공-민간 간 서로에 대한 이해 제고”

ESG 이니셔티브 및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ESG 경영 연계 중장기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NGO 등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ODA의 민간기업 참여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가치 기반의 개발협력 참여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역량 제고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 2010년 이후 한국 글로벌 진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CSR) 활동과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전에는 사업장의 이해관계자 리스크, 지역사회 공헌 차원의 기업의 홍보와 브랜드 제고 중심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단순한 금전이나 현물에 대한 기부 활동을 넘어서서 기업의 비즈니스 제품이나 벨류체인(value chain) 연계 역량강화 활동 등의 사업 모델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그림 3]의 유형 2, 유형 4).

[그림 3] 민간기업 개발협력 연계 사업 유형



주: 유형 1) ESG 경영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지속가능 혁신형: 기업이 자신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ESG - PSE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동 사업이 수원국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우
 유형 2) 주요 사업 및 주요 제품 신시장 전략 연계형: 기업의 핵심역량 또는 주요 제품을 ODA 사업과 연계하지만 수원국 민간 부문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임팩트 지속가능성은 낮은 경우
 유형 3) 개도국 현지 사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형: ODA 사업과 기업의 비즈니스 연계 정도는 낮으나 수원국 민간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개도국 현지 사업의 가치 사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우
 유형 4) 글로벌 사회공헌형: 기업이 NGO 및 재단과 협력하거나 기부활동을 통해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자료: 국무조정실(2022) 연구용역

ESG 경영의 도입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과 사회의 이슈와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적 접근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접점으로 보고 기업들이 [유형 1]의 형태로 개발협력 참여 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시의성 있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SDG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저성장, 고위험 시대에 투자와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은 가치 기반의 비즈니스가 생존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SG 패러다임이 가지고 오는 환경과 사회의 이슈가 민간 금융과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산업과 비즈니스의 융합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ESG 기반의 SDGs 달성과 한국기업들의 ESG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의 뒷면은 기회라고 한다.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이 환경과 사회 가치 및 기술과 투자, 새로운 수요와 시장에 대한 균형감과 기민함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임을 명심하자. ▣